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기호학적 의미

신호림*

【 차 례 】

- I. 서론
- II.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
- III. 폭력과 善惡의 정치학
- IV. 폭력과 가치변환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고, 폭력을 서사화시키는 서술자의 행위 즉, 그 스토리텔링 전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서사 안에 나타나는 폭력의 다양태를 구조화하는 서술자의 전략이 폭력이 단순히 실제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치변환을 일으키는 일종의 기호질서 및 중개의 영역 하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더 나아가 뮈토스로서 기능하는 신화적 힘의 저변에는 ‘폭력’이 위치하며, 폭력을 다루는 텔링의 전략이 우리나라 신화를 읽어내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공본풀이>에서 나타난 최초의 폭력은 ‘천상계’의 호명으로 사라도령을 서천꽃밭으로 소환하면서 발생한다. 사라도령의 공간이동은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원강아미를 폭력에 노출시키며, 이후 한락궁이가 부친을 찾으러 서천꽃밭으로 향할 때에도 원강아미는 여전히 폭력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장자의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원강아미의 반대편에는 사라도령·한락궁이·장자라는 남성 인물들이 서있다. 이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수료

들 남성인물들은 폭력의 공모자인 셈이다.

그러나 원강아미의 죽음을 장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를 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공모자에서 심판자로 모습을 탈바꿈한다.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그 이전까지 자행했던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그 과정을 은폐함으로써, ‘선(善)’이라는 윤리적 규범과 ‘당위’라는 행위적 규범을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오로지 장자만이 폭력의 가해자로 남게 되고 악인으로 규정되어 서사에서 축출된다. 이런 양상은 폭력의 대상이었던 원강아미를 되살려 서천꽃밭으로 편입시키는 모습에서 극대화된다.

여기에서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점유한 천상계와 장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상계는 공간적으로 이분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장자는 천상계의 인물과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지상계의 토착세력으로서, ‘징치(懲治)’의 형태로 패배를 하며 구도의 전환을 가져온다. 즉, 폭력을 통해 기존 질서체계의 파괴와 새로운 형태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가치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 즉, ‘가치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매개가 되어 서사의 추동력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가치체계의 전복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

본풀이를 신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술자의 의도는 이와 같이 폭력을 서사화하고 이를 스토리 내에 배치시키는 텔링의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폭력을 매개로 한 서술자의 중재는 그 스토리텔링 전략을 기반으로 주화(呪花) 관장신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분리-위기-해체 및 복원’의 서사전개 과정에서 각 단계의 틈 사이에 폭력을 배치함으로써 <이공본풀이>는 강력한 담론으로 기능하는 이야기 즉, 뮈토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열쇠어 : 이공본풀이, 폭력, 가치변환, 善惡, 뮈토스, 기호학

I. 서론

‘이공본풀이’나 ‘불도맞이’ 제차에서 불리는 <이공본풀이>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본풀이로서, 주화(呪花) 관장신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¹⁾ 구술전통에 의지해서 심방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본풀이는 그 행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768쪽. 같은 책에서 ‘서천꽃밭 주화(呪花) 차지 신(神)’이라고도 표현했다. 같은 책, 28쪽.

위 자체가 전개 혹은 진행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²⁾ 아직까지 뉘토스적인 힘³⁾을 간직하고 있는 ‘신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공본풀이>에 접근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내용적인 측면 즉, ‘스토리’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의 지식 형태를 뉘토스와 로고스로 구분할 때 스토리는 뉘토스와 직결되기 때문이다.⁴⁾

그런데 <이공본풀이>에는 서사 전반에 걸쳐서 ‘폭력’⁵⁾이 지속된다. 임신한 아내 원강아미를 장자의 집에 팔고 홀로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남편 사라도령,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콩 볶는 불에 어머니의 손을 지지는 아들 한락궁이, 원강아미에게 끊임없이 동침을 요구하고 끝내는 살해까지 저지르는 장자와 그 장자를 다시 수레명말약심꽃으로 징치(懲治)하는 사라도령·한락궁이까지, <이공본풀이>의 모든 사건들은 누군가의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에 나타나는 한락궁이의 폭력은 그 대상이 장자뿐 아니라 장자의 일가친척으로 확장됨으로써 집단적인 성격까지 가지게 된다.⁶⁾ 이런 폭력의 정도가 여타 다른 본풀이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이공본풀이>는 “충격적”⁷⁾이고, “불편하다”⁸⁾고 평가되기도 했다.⁹⁾

- 2)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와 해석』 (한국기호학회 편), 문학과 지성사, 1998, 143쪽. 물론 본풀이는 ‘본’ 자체가 이야기 가치가 되는 서사의 차원뿐 아니라 그러한 ‘본’이 실제로 ‘근본’으로서 존재하는 무속 제의 혹은 문화의 차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중 전자의 의미에 집중해서 본풀이에 접근하고자 한다.
- 3) 여기에서 뉘토스는 브루스 링컨의 견해를 따라 논박이 가능한 로고스와는 달리 강한 담론을 가지는 지식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뉘토스는 권력과 권위를 담언하는 담론으로, 우리가 믿거나 복종해야 할 그 무엇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브루스 링컨,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역, 이학사, 2009, 45쪽.
- 4) 송효섭, 「스토리텔링의 서사학」, 『시학과 언어학』 18, 시학과언어학회, 2010, 163쪽.
- 5) 본고에서 ‘폭력’은 물리적 행위 차원을 넘는 의미로 사용한다. 폭력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오세정,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160~163쪽 참고.
- 6) 폭력의 집단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로는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27쪽;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189쪽.
- 7)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 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폭력의 과잉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을 차치했을 때,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추정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적 상황을 신(神)이 되기 위한 ‘고난’의 한 장치로 본 것은, 바로 특정 인물이 신격으로 좌정하는 서사에서 폭력이 중요한 매개체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리츨카(James Jakób Liszka)의 말처럼 폭력이 신화에서 “가치변환(transvaluation)”¹⁰⁾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흥미로운 지점은 <이공본풀이>에서 신으로 좌정하는 인물의 복수성(複數性)에 있다. 보통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은 존재론적 변신을 꾀하는 인물들로,¹¹⁾ 어느 한 인물의 ‘공간 이동’을 통해 신성의 획득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다.¹²⁾ 그러나 <이공본풀이>에서는 최초로 서천꽃밭으로 이동한 사라도령, 이어서 부친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이동한 한락궁이뿐 아니라,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서천꽃밭의 세계에 편입하는 원강아미까지 총 3명의 인물들이 공간 이동을 통해 존재론적 변신을 꾀한다.¹³⁾

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쪽.

- 8) 조홍윤, 「콤플렉스 극복 서사로서의 <이공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화회, 2013, 259쪽.
- 9) 신연우는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에 대하여, “현실 세계의 부도덕한 횡포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문학 안에서는 잔인함도 용인”되며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살인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긍정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정의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보았다.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 이공 ·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47~248쪽; 신연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84쪽.
- 10) James Jakób Liszka, “Mythic violence: Hierarchy and transvaluation,” *Semiotica* 54:1/2, Walter de Gruyter and Company, 1985.
- 11)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12) 오세정, 「뮈토스와 스토리텔링 -한국 신화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서사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34, 한국기호학회, 2013, 152~157쪽.
- 13) 김창일은 <이공본풀이>의 주동인물을 사라도령, 한락궁이, 원강아미 3명으로 보고, 이들이 각각 주인공을 맡는 에피소드가 ‘제1노정기-수난기-제2노정기-좌정기’로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세 인물 중 어느 한 인물의 신적좌정 과정에만 주목했다. 한락궁이의 좌정답에 주목한 경우, ‘부친 탐색담’의 관점에서¹⁴⁾ 또는 콤플렉스의 관점에서¹⁵⁾ 한락궁이의 고난을 이해하고자 했고, 원강아미의 좌정답에 주목한 경우, 원강아미가 맞이해야 하는 폭력과 죽음이 신적 좌정을 위한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¹⁶⁾ 인물이란 잠재된 이야기이며 모든 이야기가 인물의 삽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¹⁷⁾ 복수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공본풀이>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지게 됨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폭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한 인물에게 주어진 폭력의 양상뿐 아니라 서사 안에서 존재론적 변신을 꾀하는 세 인물들이 겪는 폭력의 다양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다양태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재배치됨으로써 <이공본풀이>를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내는지를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고는 ‘텔링’이라는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텔링’이라는 행위는 서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서술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공본풀이>의 서술자는 작품에 존재하는 폭력을 구조화하고 재배치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폭력을 매개로 서사의 방향이 사라도령·한락궁이·원강아미의 존재론적 변신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텔링’은

지면서 순차적인 연망(連網)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계 연구」, 동아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1~32쪽.

14) 김창일, 앞의 논문, 2002, 21쪽; 노영근,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제22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140~143쪽; 신연우, 앞의 논문, 2015, 78쪽.

15) 조홍윤, 앞의 논문, 2013; 조홍윤,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조홍윤은 박사학위논문에서 ‘파에톤 콤플렉스(Phaethon complex)’에 단순 대입했던 이전의 방식을 지양하고, 서사적 측면에서 콤플렉스를 다시 살피고자 했다.

16) 김창일, 앞의 논문, 2002, 21쪽; 류효철, 앞의 논문, 2003, 52쪽;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319~328쪽;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15~25쪽; 정진희, 앞의 논문, 2002, 187쪽.

17) T.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77~81쪽.

18) 송효섭, 앞의 논문, 2010, 174쪽.

폭력을 다루는 서술자의 ‘전략’인 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고, 폭력을 서사화시키는 서술자의 행위 즉, 그 스토리텔링 전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서사 안에 나타나는 폭력의 다양태를 구조화하는 서술자의 전략은 폭력이 단순히 실재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치변환을 일으키는 일종의 기호질서 및 중개의 영역 하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뒤통스로서 기능하는 신화적 힘의 저변에는 ‘폭력’이 위치하며, 폭력을 다루는 텔링의 전략이 우리나라 신화를 읽어내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¹⁹⁾

II.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

<이공본풀이>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폭력은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이별 부분에서 나타난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김진국대감과 원진국대감이 절에 수륙불공을 드려 느지막하게 낳은 인물들로, 구덕혼사의 약속을 매개로 15세에 혼인을 하게 된다. 혼인 후 원강아미가 한락궁이를 잉태하는데, 천상계[玉皇宮]에서 사라도령을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호명함으로써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1]

십오세때에서로결혼을식히니
일년이못되어,옥황에서편지가왔는데
김진국생원은꽃감관을하라하니

<박봉춘本>, 259~260쪽.

19) 대상 자료는 현재까지 채록된 15편의 <이공본풀이> 각편으로, 그 목록은 ‘부록’에서 제시하며, 본문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는 구연자의 이름을 따 <○○本>이라고만 지칭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물명은 ‘김진국대감, 원진국대감, 사라도령, 원강아미, 한락궁이, 장자’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2]

서천꽃밭디서 삼체스가 느런

오논디, 원강암이ㄴ라

스령 체스가 말흐되,

“말 몰으쿠다.”

“예, 미신 말이우파?”

“이 고을에 사라국 사라도령이 어느만쯤 삶네까?”

(…)

원강암이ㄴ라 말을 흘을,

“부인네랑 살암시민 날랑 서천꽃밭디 가져, 체스님이 오논디 아니갈 수가
십네깁?”

<고산옹本>, 84~85쪽.

<이공본풀이>에서는 [1]과 같이 천상계에서 내려온 편지를 통해 사라도령에게 꽃감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2]처럼 삼체사[三差使]와 같은 천상계의 인물이 내려와 직접 사라도령을 데려가기도 한다. <필사본>에서는 특이하게 사일(死日)에 혼인을 했기 때문에 사라도령이 저승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인과적 해석을 내놓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꽃감관으로 호명된 사라도령은 천상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고자 한다. 서천꽃밭의 꽃감관이라는 명목으로 원강아미는 버려진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며, <이공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폭력은 바로 천상의 호명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원강아미는 떠나는 사라도령을 쫓아가보지만, ‘발병’이 나서 더 이상 길을 나서지 못한다. 그때 어디에선가 닭소리와 개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의 근원지는 장자의 집이었다.

[3]

남인(男人)남아 남인남아, 난 이제 더 걸을 수가 엇이메 저독 소리 나는
장제집(長者家)이 강 날 풀아뉵 가기 어찌흐네까?”

“그레민 어멍(母)은 언매를 받곡 베 쏘곶에 신 아긴 언매를 받으민 좋겠느냐?”

<안사인本>, 109쪽.

여기에서 원강아미는 갑자기 사라도령에게 자신을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아달라고 자청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도령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며 길을 함께 따라나서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장면이다. 더욱이 [3]에서는 사라도령 또한 원강아미의 자매(自賣) 요구를 별다른 감정 없이 받아들인다. <필자본>의 경우, 이별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 다른 각편에 비해 길게 서술되지만 역시 사라도령은 하늘의 명령을 우선으로 여기고 원강아미를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판다. 원강아미에게 주어진 폭력은 [1]과 [2]에서 살펴보았던 최초의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상의 명령은 원강아미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녀를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시킨다. 다만, [3]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자매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폭력의 흔적은 상당히 지워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²⁰⁾

그 다음 폭력은 가해자가 장자로 바뀐다. 장자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 원강아미는 장자에게 동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다. <박봉춘本>의 경우 장자가 단순히 동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강아미와 ‘배필’을 맺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폭력적인 모습이 완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노는부자와가튼데/어찌배필을무으리요”(〈박봉춘本〉, 261쪽)라고 답하고 동침을 거부하는 원강아미의 태도에 장자는 자객을 불러 바로 그녀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폭력으로 원강아미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침을 거부한 대가로 살해 대신 극심한 벌역(罰役)을

20) ‘자발적 행위’로 희생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설화에서 주로 효(孝)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공본풀이>에서는 특이하게 ‘남편을 위한 자발적 희생’이라는 형식으로 원강아미에게 향하는 폭력을 희석시키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폭력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그 폭력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만장일치적 폭력이 희생양의 자발적 희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운』 (개정판),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2000 참고.

시키는 장자의 폭력은 그 대상이 한락궁이에게까지 확장되기도 한다.²¹⁾ 다만, 한락궁이는 그 폭력을 참지 못하고 원강아미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부친탐색담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4]

할락궁이가 열다섯 나는 혜옌 어머니 보고 말을 하되,
“어머니야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으리까?”
“제인장제가 너의 아버지가 돼버린다.”

<안사인본>, 111쪽.

[5]

“어머니야 어머니야 콩이나 혼똥(一升) 보끄줍서.”
“설운 아기 콩이 어디 성 보까 주느니?”
“자제집(長者家) 장막이나 털엉봅서.”
장막을 털어단 콩 혼 줌을 보끄노렌 혼한 할락궁이 말을 하되,
“어머니야 어머니야 저 올레에 누게 오란 불럼수다. 어서 나고 오라 봅서.”
저 올레에 나고 보니 아무도 엇어지고, 할락궁이는 콩 젓단 베수기를 정
짓방석 알레레 곱쳐두고
“어머니야 어머니야, 콩이 문딱 캄시메 혼저 젓입서.”
베수기를 못 좇안 이레저레 허여가난,
“아이고 어머니, 콩 문딱 캄수게 손으로라도 혼저 젓입서.”
손으로 젓젠 혼한 할락궁이가 어명(母) 손을 꼭 누르뜨명,
“어머니야 어머니야, 이제도 바른말 못하쿠가? 우리 아버지 간 딜 곱아줍
서.”
“이 손 노라, 곱아주마.”
손을 노난 어머니가 말을 하되,

21) 이 부분은 한락궁이가 신으로 좌정하기 위한 ‘고난’의 장치로 여겨지지만, 그 고난은 장자가 한락궁이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강아미에게 주는 시련이 한락궁이에게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너의 아버지는 서천꽃밭(西天花田) 꽃감관 꽃생인(花監官花聖人)이 되어
진다.”

“어머님아, 계건 내 아바질 찾아가커메 어머님이 죽는 혼(限)이 셔도 나
간 딜 이르지 맙서.”

<안사인本>, 111쪽~112쪽.

자신의 부친이 누구냐고 묻는 한락궁이에게 원강아미는 [4]와 같이 처음에는 장자가 아버지라고 대답하지만, 한락궁이는 납득하지 않는다. 결국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뜨겁게 볶아서 거의 타고 있는 콩 위에 원강아미의 손을 잡고 누르는 일종의 고문을 가한 후에야 한락궁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게 된다. 한락궁이는 바로 서천꽃밭으로 길을 떠나고, 모친 대신 부친을 선택함으로써 다시금 원강아미는 폭력에 노출된다. 아들에게 가학적인 고문을 당한 원강아미는 장자에게도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의 고문을 당하고 결국 목이 잘려 살해당하기 때문이다.²²⁾

‘천상계의 호명-사라도령의 공간이동-한락궁이의 공간이동’이라는 사건의 연쇄는 관념상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그 과정에서 원강아미는 지속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며 혼자서 그 고통을 인내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장자의 폭력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정진희가 지적했듯이 그 연원에는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위치한다.²³⁾ 공간이동을 통해 존재론적 변신을 도모하는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원강아미를 향한 폭력을 통해서 신적 좌절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고

22) <조흘대本>이나 <고산옹本>에서는 자신이 떠나면 원강아미가 죽는다는 사실을 한락궁이가 인지하고 있다. “어머님, 전이 이걸 내여주어시민/우리아방 좇앙 갈꺼 아니우깁/이젠 난 가불민/어명은 죽일거우다.” <조흘대本>, 78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락궁이는 원강아미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이 간 곳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만을 보인다. “어머님 나 가불민/어머님 이번은 죽읍네다./죽어지나때나 나 간 디랑/긔지 맙서.” <고산옹本>, 91쪽.

23) “원강암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락궁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강암의 남편인 사라도령이 원강암을 혼자 남겨놓고 꽃감관 벼슬을 살려 떠났기 때문이다.” 정진희, 앞의 논문, 2002, 190쪽.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인 상황은 단순히 여성[원강아미]에 대한 남성의 폭력 [사라도령, 한락궁이, 장자]으로 갈무리되지 않는다. 서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천꽃밭에 도착한 한락궁이는 “본메본장”이나 합혈(合血) 의식을 통해 부친과 상봉하고, 웃음꽃, 싸움꽃, 수레멸망악심꽃 등을 이용해서 장자뿐 아니라 그 일가 친족까지 몰살해버리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장자의 징치 정도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의 양태가 이 마지막 폭력을 통해 새롭게 구조화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폭력과 善惡의 정치학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마지막 폭력은 장자와 그 일가친족에 대한 징치로 나타난다. 그 징치의 직접적인 주체는 한락궁이이지만, 그 배경에는 사라도령이 존재한다.

[6]

발등띄는물과겨드랑이띄던물은
너어미죽어서원한깊은눈물이라
네가여괴찾어올때네가없어지니
장자가네어미르죽엿다하니
할락궁이이말듯고슬프고분하야
원수갚을길을생각타가

<박봉춘本>, 265쪽.

[7]

마지막 죽영 가명, 피눈물이 흘러시난, 혼저 강근 그 제인장제집의 원수
랑 먼 갇아 두고, 어명이랑 [소리] 혼저 살령 오라.

<양창보本>, 149~150쪽.

사라도령은 한락궁이와 상봉한 후, 한락궁이에게 서천꽃밭으로 오는 길에 발등(또는 무릎)에 찬 물, 잔등에 찬 물, 목에 찬 물을 건너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것이 곧 원강아미가 장자에게 꺾었던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의 물이라고 설명한다.²⁴⁾ 한락궁이는 원강아미가 장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6]에서처럼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거나, [7]에서처럼 사라도령의 명령에 따라 장자를 징치하고자 한다. 원강아미에 대한 복수를 행한다는 점에서 조동일은 <이공본풀이>를 “효행서사시”로 규정하기도 했지만,²⁵⁾ 사실 원강아미의 죽음을 마주한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강아미의 죽음을 초래한 근원에는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떠남, 곧 원강아미에 대한 두 인물의 폭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8]

“이 년 저 년 괴썸흔 년,
사름을 썩기기로만 대여들고,
맷 번을 사름을 썩겨서,
죽여불키여.” 앞 발디 장검 걸라
뒷발디 버텨 걸라
죽강놈을 불르라.

24) <조흘대本>에서는 장자가 원강아미에게 “초택임”, “이택임”, “삼택임”을 주며 고문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조흘대本>, 79쪽.

2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01~102쪽.

26) 실질적으로 장자의 징치는 한락궁이에 의해 수행되지만, 사라도령이 한락궁이의 복수 행위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하나’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정진희는 이를 두고, 사라도령을 ‘숨은 신’, 한락궁이를 ‘활동하는 신’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정진희, 앞의 논문, 2002, 189쪽.

숙적기도 내여걸라
 흥여가난
 말쑥말쑥애기가
 “아바님은 이거 미신 일이우파?
 (…)
 이녀 종이라도 죽이민 살인으로
 역작으로 죽각으로 다시립네다.

<조흥대本>, 76쪽

[8]은 원강아미가 계속 장자의 동침 요구를 속임수로 거절하다가 장자의 분노를 사게 되는 장면이다. 장자는 크게 화를 내며 당장 원강아미를 죽이려고 하지만, 장자의 막내딸이 나서서 종이라도 죽이면 그것은 ‘살인’으로, 역적으로 취급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자와 원강아미의 관계에서 그 폭력의 정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자가 원강아미를 살해한 것은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떠났기 때문이고, [5]에서도 나타나듯 원강아미가 한락궁이가 떠난 곳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강아미에게 가해진 폭력은 사실 장자와 한락궁이, 더 나아가 장자와 사라도령의 관계망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자에 대한 두 남성 인물의 폭력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사실 폭력의 대상으로서 원강아미를 상정한다면, 사라도령·한락궁이나 장자는 모두 폭력의 가해자로 상호간 공모의 관계에 있다. 폭력에 대한 책임을 논하자면 세 명의 남성인물들은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폭력을 통해 세 남성 인물의 관계는 재정립된다. [6]과 [7]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듯 장자에 대한 징치는 원강아미에 대한 “원수”를 갚는 행위로 나타난다. 폭력의 공모자에서 폭력에 대한 심판자로 일순간 모습을 바꾼 것이다. 심판자의 입장에 선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더 나아가 장자를 ‘악(惡)’으로 규정짓는다. 장자와 그 일가친족을 몰살

시킨 꽃인 ‘수레멸망악심꽃’은 악심을 가진 악한 존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꽃으로,²⁷⁾ 서천꽃밭에 존재하는 주화(呪花)의 한 종류이다. 서천꽃밭에서 꽃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라도령과 그의 아들 한락궁이는 이 주화를 통해 장자를 징치함과 동시에 장자를 ‘악인’으로 낙인찍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자가 악인이 된다면,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악인을 징치하는 선인(善人)의 지위까지 획득하게 된다. 원강아미에 대한 폭력의 책임을 모두 장자에게 덧씌우고, 원강아미를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자신들의 폭력은 은폐하는 것이다. 장자의 폭력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그를 징치하는 모습은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폭력은 드러나지 않은 폭력의 형태로 서사를 직조(織造)한다. 이와 같은 두 양상은 오세정이 지적한 폭력의 뒤통스와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 즉, 드러난 폭력은 징악(懲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대립체계를 설정하고,²⁸⁾ 드러나지 않은 폭력은 권선(勸善)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²⁹⁾

이처럼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폭력을 은폐하는 기제를 ‘정치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치학은 ‘복수의 주체들이 공존하기 위한 질서의 모색에 관한 사유’³⁰⁾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가 얹히면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즉, 개인과 집단의 계획, 야심 및 행위가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는 장을 ‘정치적 공간’으로 보는 것으로,³¹⁾ 복수의 주체가 어울림 또는 그와는 반대로 서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이를 어떻게

27)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10, 제주학회, 1993, 24쪽.

28) 오세정, 앞의 논문, 2014, 171쪽.

29) 위의 글, 177쪽.

30) 셸던 월린, 『정치와 비전: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 1, 강정인·공진성·이지운 역, 후마니타스, 2007, 1장 참고.

31) 위의 책, 48쪽.

질서의 요구와 양립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새롭게 질서를 수립하는 방식이 폭력의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의 배치와 깊게 관련된다.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그 과정을 은폐함으로써, ‘선(善)’이라는 윤리적 규범과 ‘당위’라는 행위적 규범을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오로지 장자만이 폭력의 가해자로 남게 되고, 악인으로 규정되어 서사에서 축출된다. 폭력을 통해 선악의 구분과 동시에 선을 획득한 인물들에 의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선악의 정치학이 폭력과 관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폭력은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강아미를 환생시키는 장면과 원강아미가 신격으로 좌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은폐된다. 장자와 그 일가친족을 징치한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도한생꽃으로 원강아미를 되살린다. 그리고 원강아미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자신은 주로 꽃감관의 지위를 물려받는데, 이때 원강아미는 ‘저승어명’으로 좌정한다. 저승어명은 15세 이전에 죽은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유모로서, 기능적으로 볼 때 <이공본풀이>의 신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산육신(產育神)으로 좌정하는 명진국따님애기의 적대자인 동해용궁따님애기 또한 저승어명으로 좌정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저승어명으로서의 좌정이 사라도령이나 한락궁이의 신적 좌정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²⁾ 주화 관장신의 근본을 푸는 <이공본풀이>에서 저승어명으로서의 좌정은 어떤 신격(神格)으로서의 상승이 아니라,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만들어놓은 질서 체계로의 편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³³⁾

32) 물론, ‘불도맞이’에서 <이공본풀이>가 불릴 경우 ‘저승어명’으로서의 신적 좌정이 제의적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수자가 지적했듯이 <이공본풀이>는 ‘이공’이라는 신에 대한 제의에서 신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신화로, 여기에서 ‘이공’은 서천꽃밭에서 여러 가지 생명꽃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수자, 앞의 논문, 1993, 20-26쪽.

33) 이에 대해서는 정진희의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기본적으로 ‘수

따라서 원강아미를 환생시키고 서천꽃밭으로 편입시키는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행위는 그 이전에 원강아미에게 가했던 폭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보상은 원강아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라도령과 한락궁이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장자를 징치하고 이 세계에서 축출하는 서사와도 같은 지향점을 지니는 원강아미의 부활 및 서천꽃밭으로의 공간적 편입은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점유한 신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IV. 폭력과 가치변환

<이공본풀이>에서 나타난 최초의 폭력은 천상의 호명에 의한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에 꽃감관으로 소환된 이유는 꽃감관의 부재(不在)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재의 상황은 곧 천상계의 ‘결핍(lack)’과도 연결된다.

[9]

할마님[필자: ‘멩진국 할마님’]은 서천꽃밭을 베실을 해연 [말] “아이고, 이 꽃은 그냥 놔두면 어떻허느니. 꽃감관 꽃성인이나 하나 마련을 해살 걸.” 영 해여 소문 들음들음 헛 것이 사레도령이 역역허고 똑똑허난, [소리] 꽃감관에 꽃성인을 마련헌다.

금부도사 네냥 돌아오렌 허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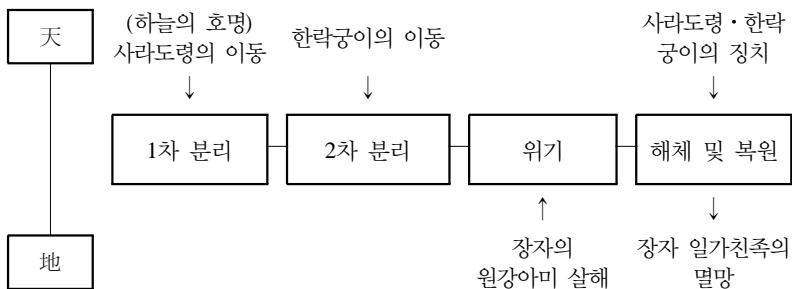
<양창보본>, 139쪽.

레멜망악심꽃’을 담당하는 이공신인 ‘한락궁이’에 관한 신화로, 한락궁이 중심의 질서 체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레멜망악심꽃’을 제어할 수 있는 신의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근거로 하는 신 중심의 질서, 신의 질서 체계 내에 포섭되지 않은 자(장자)에 대한 징벌, 질서의 주변에 있는 자(원강암)가 그 내부로 포섭되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이공본풀이」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진희, 앞의 논문, 2002, 192쪽.

<양창보본>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생육신으로 좌정하는 명진 국따님애기씨가 등장해서 서천꽃밭을 관리할 인물을 탐색한다. 천상계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계의 인물인 사라도령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는 지상계에서의 결핍을 유발한다. 즉, 지상계에 머물고 있는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락궁이가 원강아미를 떠나 부친을 찾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장면에서도 ‘분리’가 일어난다.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두 차례의 ‘분리’가 물리적 이동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면 ‘천상계/지상계’라는 분류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문제는 분류가 결코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며, 분류된 것 사이에서 새롭게 확립되는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에 있다. 분류는 범주적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이기 때문이다.³⁵⁾ 분리를 통한 분류가 <이공본풀이> 서사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도식 1] 천/지의 분류와 <이공본풀이> 서사의 전개



34) 김창일은 서천꽃밭을 ‘제3의 중간계’로 보고 서천꽃밭이 <이공본풀이> 안에서 현실 계도 죽음후의 세계도 아닌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일, 앞의 논문, 2002, 51쪽. 그러나 서천꽃밭을 ‘저승’으로 지칭하는 각편(<조홀대본본>, 72쪽; <고산용본>, 91쪽; <양창보본>, 140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천꽃밭은 제3의 공간이기 보다는 천상계에 속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35) 브루스 링컨, 앞의 책, 2009, 245쪽.

리츠카는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의 통과의례 논의를 참고해서 신화를 ‘파괴(분리)-위기(경계)-복원(해체)’의 세 단계로 정리한바 있다.³⁶⁾ 이를 <이공본풀이>에 적용해보면, [도식 1]과 같은 내용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의 분리를 통해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표상되는 천상계에 위치하게 되며, 장자는 천상계와 대립하는 지상계를 점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때 장자는 단순히 지상계의 인물일 뿐 아니라 지신적(地神的) 세력권자로 이해해볼 수 있다. 천혜숙은 함흥본 <제석본풀이>에서 당금애기의 부친으로 등장하는 ‘만년장재비’가 ‘당주애비’와의 음상사(音相似)로 연결되며, ‘장자아부’, ‘장자애비’ 등의 명칭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 대상의 이칭(異稱)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장자를 지신격(地神格) 또는 지신적 세력권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³⁷⁾ 박종성은 더 나아가 <장자못 전설>에서의 ‘장자’, 평북 강계의 <성인노리푸념>에 등장하는 ‘당주애비’, 호남지역의 <장자풀이>에 등장하는 ‘사마장자’와 ‘우마장자’,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수명장자’를 살펴보면 장자가 ‘곡물을 주관하는 지신(地神)의 사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³⁸⁾ 즉, 장자가 지상계에 토대를 잡고, 천상계의 신과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권을 가진 토착 인물로 우리나라 본풀이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장자 역시 천상계를 점유한 인물과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지상계의 토착세력으로 봐야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공본풀이>의 장자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서천꽃밭으로의 공간 이동을 통해 신적 능력을 획득한 한락궁이를 받아들이지 않

36) “With this notion of crisis in mind, it is quite possible to divide the myth into three stages (following Van Gennep’s analysis of rites [1961]): disruption (separation), crisis (liminality) and reintegration/disintegration.” James Jakób Liska, *op. cit.*, pp.237~238.

37)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51쪽.

38)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수명장자정지담과 천지왕의 결연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6,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359~361쪽.

는 집단 정도로만 해석했다.³⁹⁾ 그러나 충분히 <이공본풀이>의 장자 역시 다른 본풀이에 등장하는 장자와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10]

할락궁이는낮에는남오십바리
밤이면노오십발꼬게하고
어명중은하를낮하를밤에물명주닷동
강명주닷동멘들라고마련합시한즉
할락궁이는남한바리를끈어다가
소한머리에식거노으면
소오십머리에남오십바리가되고
명주도한필을짜면다섯필식되야
고역을다하더니
장자가더귀롭게하겟다하야,줍씨한섬을주며
깊은산중에남을베여서밧을멘들고
하를에다뿌니라하니
깊은산중에가서남을베고밧을멘들더니

<박봉춘本>, 261~262쪽.

지엽적이지만, 원강아미가 장자의 동침 요구를 거절한 대신 벌역을 하는 장면을 보면, [10]에서와 같이 장자가 지시하는 일들은 농경과 직물과 관련이 있다. 물론, 나무를 베어 밧을 만들고 씨를 뿌리는 행위나 명주를 짜는 행위의 주체는 장자가 아닌 할락궁이와 원강아미이기 때문에, 특히 할락궁이에 초점을 둔 경우 이 장면은 할락궁이의 비범하고 초인적인 노동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⁴⁰⁾ 그러나 장자는 이 둘을 종으로 부리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인물로, 노동행위에서는 배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동의 영역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적극

39) 정진희, 앞의 논문, 2002, 189쪽.

40) 노영근, 앞의 논문, 2003, 138~139쪽.

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고난을 주기 위한 문학적 소재로 선택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특히 농경과 직물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장자의 지신적인 흔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공본풀이>의 장자가 지신격과 관련이 있다면, 그는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에 가기 전부터 이미 거부(巨富)로서 지상계에 머물고 있던 토착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락궁이가 폭력을 가하는 대상이 장자뿐만 아니라 장자의 일가친족 즉,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장자가 개인적인 인물이 아닌 토착집단을 표상하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천상계/지상계’의 이분법적 분류는 개인과 개인이 아닌 집단과 집단을 분류하는 경계가 된다. 그리고 서천꽃밭에 꽃감관이 부재하는 상황은 천상계의 결핍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상의 질서체계를 장자로 대표되는 지상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공본풀이> 서사는 결국 지상계 세력의 제거와 천상계 세력의 지배권 획득으로 귀결된다. 다시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식 1]을 살펴보면, 폭력이 나타나는 지점은 ‘분리’, ‘위기’, ‘복원’의 각 단계가 시작되거나 교차되는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츨카의 말처럼, 서사가 진행되는 세 단계의 틈에서 폭력이 나타나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⁴²⁾ 특히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폭력은 그 방식 또한 여타의 폭력과

41) 농경신이자 지모신은 베짜기와 옷만들기의 신성한 능력을 보이는 직물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직물은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지영, 「직물신의 전승에 관한 시론적 연구: 옷·베짜기 신화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308쪽.

42) “The violences that occur in myth generally play a strategic role in the narration. They usually occur at the interstices of the three stages, in most cases effect the transition from one to the other.” James Jakób Liszka, *op. cit.*, 1985, p.238.

다르게 나타나 주목된다.

[11]

“느네텔 모여 앓으라” 죽일태상에 허여가난
“너네텔 모앗 앓으민 나도야 혼마디 허여동 죽으켜.”
“어서걸랑 기영허라”
모여 앓안야 웃는꽃 내여노난 와락치락 웃어간다.
쌘는 꽃을 내여 노난야
네머리 내머리-
싸화나 가는구나 헤아
죽는 꽃을 내여노안 헤아
이른 으뎝 종놈덜이 슬슬허게 죽엿고나

<현금순本>, 84쪽.

대부분의 <이공본풀이> 각편이 [11]에서처럼 웃음꽃, 싸움꽃, 수레멸 망악심꽃(죽음꽃)을 이용해서 장자 일가친족을 살해하는 것으로 그려낸다. ‘웃음’ 역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발점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⁴³⁾ 세 가지 종류의 꽃은 모두 죽음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다른 도구가 아니라 바로 ‘천상계에 위치’하는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이용해서 장자 일가친족을 멸절시키는 것은, 지상계에 대한 천상계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을 통해 기존 질서체계의 파괴와 새로운 형태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가치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 즉, ‘가치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⁴⁴⁾ 장자로 대표되는 지상계의 질서체계는 해체되고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로

43)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2014, 74쪽.

44) “This emphasizes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myth as a *disruption and reintegration of hierarchy*. As such it is highly conducive to the (re)structuring of value systems, i.e., their transvaluation.” James Jakób Liszka, *op. cit.*, pp.237~238.

대표되는 천상계의 질서체계로 세계가 재구축된다. 舊질서의 지배자 또는 舊질서를 보수하고자 하는 장자는 악인으로 치부되어 서사에서 축출된다.⁴⁵⁾ 이 모든 과정에서 ‘폭력’은 매개가 되어 서사의 추동력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가치체계의 전복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

<이공본풀이>는 이공신의 근본을 푸는 서사로, 서천꽃밭이라는 천상계의 질서체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체계로 인식될 때 비로소 권력과 권위를 담언하는 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서사 내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1)인물의 존재론적 변신을 위해, 2)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3)질서의 해체와 복원이라는 가치변환을 이루기 위해 ‘분리-위기-해체 및 복원’의 틈 사이에서 발생한다. 본풀이를 신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술자의 의도는 이와 같이 폭력을 서사화하고 이를 스토리 내에 배치시키는 텔링의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리’ 단계에서 공간을 이분화하고 ‘위기’ 단계에서 선악을 분류한 이후에 ‘해체 및 복원’에서 새로운 질서체계를 세계의 가치로 내세움으로써 새롭게 등극한 신의 이야기를 강력한 담론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폭력을 매개로 한 서술자의 중재는 그 스토리 텔링 전략을 기반으로 “꽃의 뿌리”⁴⁶⁾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게 만들고 있다.

45) 더글라스의 논의를 빌리자면, 장자는 ‘오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절대적인 오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것은 질서에 반대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오물을 배제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조직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곧 다수의 이념에 따르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글라스는 이 메커니즘이 큰 사회 체제에 적용되는 위계질서나 대칭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분류의 문제와 옳고 그름을 정하는 도덕적 영역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메리 더글라스, 『순수와 위험』, 유제분·이훈상 역, 현대미학사, 1997, 23-25쪽.

46) “초공은 신평리여 / 이공은 꽃뿌리”(〈고순안本〉, 147쪽)와 같은 발언을 참고해볼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이공본풀이>에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고, 폭력을 서사화시키는 서술자의 행위 즉, 그 스토리텔링 전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공본풀이>에서 나타난 최초의 폭력은 ‘천상계’의 호명으로 사라도령을 서천꽃밭으로 소환하면서 발생한다. 사라도령의 공간이동은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원강아미를 폭력에 노출시키며, 이후 한락궁이가 부친을 찾으러 서천꽃밭으로 향할 때에도 원강아미는 여전히 폭력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장자의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원강아미의 반대편에는 사라도령·한락궁이·장자라는 남성 인물들이 서있다. 이들 남성 인물들은 폭력의 공모자인 셈이다.

그러나 원강아미의 죽음을 장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그를 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공모자에서 심판자로 모습을 탈바꿈한다. 사라도령과 한락궁이는 그 이전까지 자행했던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그 과정을 은폐함으로써, ‘선(善)’이라는 윤리적 규범과 ‘당위’라는 행위적 규범을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오로지 장자만이 폭력의 가해자로 남게 되고 악인으로 규정되어 서사에서 축출된다. 이런 양상은 폭력의 대상이었던 원강아미를 되살려 서천꽃밭으로 편입시키는 모습에서 극대화된다.

여기에서 사라도령과 한락궁이가 점유한 천상계와 장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상계는 공간적으로 이분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장자는 천상계의 인물과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지상계의 토착세력으로서, ‘정치’의 형태로 패배를 하며 구도의 전환을 가져온다. 즉, 폭력을 통해 기존 질서체계의 파괴와 새로운 형태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가치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 즉, ‘가치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매개가 되어 서사의 추동력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가치체계

의 전복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

본풀이를 신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술자의 의도는 이와 같이 폭력을 서사화하고 이를 스토리 내에 배치시키는 텔링의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폭력을 매개로 한 서술자의 중재는 그 스토리텔링 전략을 기반으로 주화(呪花) 관장신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분리-위기-해체 및 복원’의 서사전개 과정에서 각 단계의 틈 사이에 폭력을 배치함으로써 〈이공본풀이〉는 강력한 담론으로 기능하는 이야기 즉, 뉘토스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장주근저작집Ⅱ: 서사무가 편』, 민속원, 2013).
- 赤松智城・秋葉隆 공편, 『조선무속의 연구』 上, 심우성 역, 동문선, 1937.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풍속무음』 上,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9.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07.
- 『한국음악』 31, 국립국악원, 2000.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영근,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129~149쪽.
-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 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수명장자징치담과 천지왕의 결연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6,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351~382쪽.
-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와 해석』 (한국기호학회 편), 문학과 지성사, 1998, 143~163쪽.
- _____, 「스토리텔링의 서사학」, 『시학과 언어학』 18, 시학과언어학회, 2010, 163~180쪽.

-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
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33~257쪽.
- _____,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
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69~94쪽.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
국무속학회, 2010, 305~333쪽.
- 오세정, 「뫼토스와 스토리텔링 -한국 신화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서사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34, 한국기호학회, 2013, 141~167쪽.
- _____,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화와 의미화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
구』 38, 한국기호학회, 2014, 157~182쪽.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7, 67~96쪽.
-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10, 제주학회, 1993, 13~65쪽.
- _____,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 이
화여자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5~30쪽.
- 이지영, 「직물신의 전승에 관한 시론적 연구: 옷·베짜기 신화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281~318쪽.
-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181~197쪽.
- 조홍윤, 「콤플렉스 극복 서사로서의 <이공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 37, 한
국구비문학학회, 2013, 257~286쪽.
- _____,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5.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
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2014, 61~87
쪽.
- T.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개정판),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2000.
- 메리 더글라스, 『순수와 위험』, 유제분·이훈상 역, 현대미학사, 1997.
- 브루스 링컨,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김윤성·최화선·홍윤
희 역, 이학사, 2009.
- 셀던 윌린, 『정치와 비전: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 1, 강정인·공진

성·이지운 역, 후마니타스, 2007.

James Jakób Liszka, “Mythic violence: Hierarchy and transvaluation,” *Semiotica* 54:1/2, Walter de Gruyter and Company, 1985, pp.223~249.

❖ 부록 : 〈이공본풀이〉 각편 목록

연번	각편명	구송자	출처
1	이공본풀리 (二公本解)	박봉춘	赤松智城·秋葉隆 공편, 『조선무속의 연구』 上, 심우성 역, 동문선, 1937, 259~267쪽.
2	이공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07, 108~114쪽.
3	이공본풀이	현금순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9, 69~85쪽.
4	이공본	조홀대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71~82쪽.
5	이공본	고산옹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82~97쪽.
6	이공본	필사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풍속무음』 上,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49~212쪽.
7	이공본풀이	이승순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53~161쪽.
8	이공본풀이	이중춘 김윤수	『한국음악』 31, 국립국악원, 2000, 64~71쪽.
9-1	이공본풀이	한생소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247~258쪽(‘이공본풀이’).
9-2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371~375쪽(‘상승할망 본풀이’).
10	이공본풀이	고대중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장주근저작집Ⅱ: 서사무가 편』, 민속원, 2013), 157~168쪽.
11	이공본풀이	이용옥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09, 166~189쪽.

연번	각편명	구송자	출처
12	이공본풀이	양창보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34~153쪽.
13	이공본풀이	고순안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45~161쪽.
14	이공본풀이	서순실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133~148쪽.

A Study on the Aspects of Violences and its Semiotic Meaning in *Igong-Bonpuri*

Shin, Ho-R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alyzing aspects of violences and its semiotic meaning in *Igong-Bonpuri*. In narrative, violences do not mean just real violences but mean something specific in semiotics space which occur the transvaluation. This article would be able to point out that telling strategy that deals with violences could be one significant way to read the world of Korean myth.

In the narrative of *Igong-Bonpuri*, the first violence is occurred by the interpellation from the heaven to *Sahra-doryeong*. *Wongang-ami*, a wife of *Sahra-doryeong*, starts to be exposed by violences because not only *Sahra-doryeong* but also the other male characters such as her son *Hanlakgung-i* and the antagonist *Jangja* do give her lots of pains with cruelty. It can be structuralized by the two oppositional dichotomy between assailant and victim, which is also called male and female. In order to accomplish desire of males, female character always has to endure the violence from male characters.

However, reversal situations suddenly pops out when the last violence is occurred. It does not mean a female character changes the fundamental situation. It happens among male characters. At the end of narrative, *Sahra-doryeong* and *Hanlakgung-i* defines the antagonist *Jangja* who reigns the world of earth as an 'evil', and put him the guilt on which is also closely related with two protagonists *Sahra-doryeong* and *Hanlakgung-i* who belong to the world of heaven. It means the biased dichotomy occurred and it can be described as new two oppositions, good and evil, heaven and earth, protagonist and antagonist. The violences of protagonists is finally concealed and only antagonist's violence exists which becomes the fatal reason that antagonist has to be removed from the world of narrative.

This looks very political(and it is). The basic function of violence in the narrative of *Igong-Bonpuri* is transvaluation. The structure of narrative is based on the sequences of ‘separation-crisis-reintegration/disintegration.’ At the interstices of these three stages, violence always occurs and it takes a strategic role in the narrative. It emphasizes the framework of *Igong-Bonpuri* as a disruption and reintegration of hierarchy. It is described by the violence between *Sahra-doryeong* and *Hanlalgung-i* who belong to the world of heaven and *Jangja* who belong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e earth. It is highly conducive to the (re)structuring of value systems, the transvaluation and this mechanism makes the narrative of *Igong-Bonpuri* as the narrative of mythos, the myth.

Key words : Korean myth, violence, transvaluation, good and evil, mythos, semiotic meaning

투고일 : 2016. 02. 15. / 심사일 : 2016. 02. 30. / 심사완료일 : 2016. 03. 05.